

## 민주당 총선 참패 후 호남 정치권의 과제

# 당선자들, 민주당 중심에 서라

### 변방 전략 호남, 정치력 복원 시급

### 민심 제대로 읽고 리더십 키워야

4·11 총선이 막을 내렸다. 광주·전남지역 민심을 대변하는 것은 물론 현안 사업을 챙기고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제시할 19명의 선량이 선출됐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에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당선자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호남 정치권의 현실=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 정치권의 정치적 환경은 척박하다. 차기는 물론 차차기 대선주자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적 미래와 조정 능력을 갖춘 중진도 찾아보기 힘들어 이미 지역

정치권의 위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방으로 밀린 상황이다.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내 주류층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사실상 주변인에 불과하다.

“민주당=호남당”이라는 등식은 깨진지 오래다. ‘무늬만 호남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진용에 대해서도 말이 많다.

전문성 등 개개인의 능력은 있지만 호남 정치권의 도약을 이끌어내기에는 정치적 전투력이 약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천정배, 김홍석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출신 수도

권 의원들도 대부분 낙선, 역대 국회에서 가장 취약한 진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남 정치력의 복원=시대 흐름에 맞는 정치적 비전과 리더십 구축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전투력이 필요하다.

시대적 요구를 직시하고 지도부의 눈치를 보기 보다는 ‘계급장 떼고 한판 붙는’ 정치적 투쟁력과 비전이 필요하다.

여기에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보였던 상호 불신을 털어내고 지역 정치권의 도약을 위한 공감대 형성도 절실하다. 호남 정치권의 도약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강력한 연대를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척박한 상황에서 못지않으면 대선 등을 앞두고 당내 역학구도에 휩쓸리면서 오히려 지역 정치권의 역량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 두 명이나 배출했다는 점에서 당을 떠나 지역 현안에 대한 공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소통과 비전 제시=국민의 정부 이후, 지역 민심과 지역 정치권의 신뢰구조는 크게 약화됐다.

정치적 공감대를 이뤘던 민주화와 호남 정권 창출이 현실화된 이후, 지역 민심의 약화를 불렀고 이는 지역 정치권의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지난 17, 18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지역 정치권의 분열과 반목 등은 지역 민심의 약화를 불렀고 이는 지역 정치권의 역량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총선 때 마다 붓물처럼 터지는 ‘물갈이’ 여론은 이를 극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대 국회에서는 지역 민심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과감한 정치적 비전 제시로 새로운 희망을 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역살 잡힌 국민의 대표** 12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회(공법단체) 설립추진위원회' 소속 한 회원에게 역살을 잡히고 있다. 추진위 회원들은 강기정 의원이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4·11 총선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참배를 저지하려다 몸싸움을 벌였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여수 호텔들 엑스포 망치려나

### 1박 30만원대...웃돈도 요구

여수세계박람회(5월 12일~8월 12일·이하 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지역 일부 호텔들이 숙박료는 2~3배나 올릴 만큼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모텔은 예약 문의조차 드문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턱없이 높은 호텔 숙박료 때문에 숙소를 예약하려던 관광객들이 지레 겁을 먹고 여수에서의 숙박을 아예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여수지역 숙박업계에 따르면 일부 호텔은 2명이 잘 수 있는 침대 방 하나에 26만~33만원(부가세 별도)을 받고 있다. 이는 1년 여 전에 비해 3배가량 오른 가격으로 서울 강남의 호텔(28만~32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모든 호텔들이 박람회 기간에 극성수기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아예 “방이 없다”는 호텔도 많아 울며 겨자먹기로 서둘러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주부 오은아(46·여수시 여서동)씨는 “친척을 위해 미리 방을 예약하려 했는데, 한 호텔이 처음에는 방이 없다고 하더니 나중에 웃돈을 요구하더라”고 말했다.

호텔 숙박료 상승은 공교롭게 모델 업계로 불통이 뒤편이다. 여수시 화강동 C모델 업주 서모(40)씨는 “성수기 요금을 적용해 10만원의 숙박료를 받을 예정인데, 예약은 단 한 건도 되지 않았고 문의도 전혀 없다”면서 “몇몇 호텔은 돈을 올려 바다 보니 ‘여수는 비싸다’는

소문이 퍼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인근 D 모델도 사정은 비슷했다. 업주 장모(47)씨는 “박람회 개막하면 손님들이 많아졌지만 예약이 없어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들 호텔들이 숙박료를 일제히 올린 것은 박람회 기간 여수 지역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박람회 기간 하루 숙박 수요는 3만5738실로 예상되지만 현재 여수시의 숙박시설은 7470실뿐이며, 개막 때까지 추가되는 시설을 포함해도 9898실에 불과하다.

이에 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11일 그동안 여수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업소를 안내해왔던 홈페이지를 개편, 광주·전남 전 지역과 부산시, 하동·진주·남해 등 경남지역 숙박업소까지 안내해주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 한명숙 사퇴론 확산

4·11 총선 패배 책임의 중심에 있는 민주당 한명숙 대표에 대해 당내에서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장성민 전 의원이 12일 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 및 정계은퇴, 지도부 해체를 요구한 데 이어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지도부 사퇴론을 거둬고 나섰다.

장 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을 쫓긴 지 불과 5년 만에 하늘과 민심이 준 정권교체의 기회를 민주당은 오만과 자만의 리더십으로 스스로 망쳤다”며 “한 대표는 당 내

표적, 비례대표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사의 시계 바늘을 거꾸로 돌린 현 민주당 지도부는 즉각 해체하고 당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운영해야 한다”며 “비대위에는 오만과 자만의 상징이 된 실패한 친노(친노 무련) 그룹과 486들을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도 이날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11총선 결과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지 않으면 연말 정권교체도 힘들 것이다”며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특정 계파가 독식하고, (모바일 국민경선이라는) 시대착오적인 경선으로 오히려 국민의 반발을 샀다”며 “지도부 책임론의 방향은 한명숙 대표 사퇴가 될 것”이라고 한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그는 이에 앞서 목표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사퇴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강기정·김동철·이웅섭·장병완·박해자·임내현 등 광주 지역 당선자들도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

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고 참패한 원인은 자만과 무능 때문이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지도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처럼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표 사퇴론이 확산하고 있어 당 안팎에서는 한 대표가 원내대표 경선 내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신임 지도부를 구성한 뒤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광주에서 15~20분대의 우수한 접근성과  
밀리지 않는 정확한 티오프시간으로 고객님의 시간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혜택이 좋은 회원권 보다는 대우받는 회원님으로 모시겠습니다.

### 해피니스CC 회원모집

- 모집기간 : 구좌 마감시 까지
- 클럽위치 : 전남 나주시 다도면 송하리 1219번지
- 코스규모 : 총 27홀 Par 108(전장 9,575m), 회원제 18홀, 퍼블릭 9홀

<b>VIP 정회원 - 모집인원 : 3명</b>	<b>하트 정회원 - 모집인원 : 15명</b>
▶ 입회금액 : 3억 3,000만원	▶ 입회금액 : 2억원
▶ 회원특전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동반3인 상시 그린피 50%할인, 연20회 그린피 면제, 단 1월/1회 18홀 기준), 월 8회 주말부킹 보장(1월 1회),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365일 사용, 1일 1회)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120회 사용, 1일 1회)
<b>휴면 정회원 - 모집인원 : 10명</b>	<b>해피 정회원 - 모집인원 : 25명</b>
▶ 입회금액 : 1억 5,000만원	▶ 입회금액 : 1억 1,000만원
▶ 회원특전	▶ 회원특전
-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공통 : 정회원 1인 그린피 면제, 월 4회 주말부킹 보장, 골프텔 개장시 할인 혜택
- 지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지정회원 1인 : 준회원대우(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연 90회 사용, 1일 1회)	
<b>주중 / 평일 회원 - 모집인원 : 47명</b>	
▶ 입회금액 : 3,300만원(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 할인)	
▶ 회원특전 : 평일회원 1인 : 그린피 70%선 할인	

※ 계약시 : 정회원인 그린피 면제(회원대우) / 원납시 : 모든 특전  
※ VIP·하트·휴면·해피 정회원은 광주은행 당보대출 70%선(신용등급에 따라 추가대출 가능) ※ 공개모집 인원 초과시 추첨에 의하여 회원선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광주은행	001-127-012066	해피니스컨트리클럽(주)	계약금20% 납입후 1개월내 잔금납입

**가입문의** Tel 061)330-5001~4 / Fax 061)330-5009

**hAPPINESS** 해피니스CC www.happinssc.com